

새은혜 교회 <a href="http://ngrace.org">http://ngrace.org</a>	
분류	심야 기도회
제목	이름 부르기
성경	창세기 4 : 25 ~ 26
일시/장소	2023년 01월 27일 금요일 / 새은혜 교회
강사	한병철 목사 (녹취 : 이요셉 렘넌트)

### ■ 창세기 4 : 25 ~ 26

-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 요약

#### 1. 기도의 시작

- (1) 여호와의 이름 - 하나님, 아버지  
(창4:25-26, 창12:7-8)
- (2) 주의 이름 (행2:21)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예수님, 예수여

#### 2. 왜

- (1) 내 능력 밖 (막10:27)
- (2) 그런데 뱀은 (창3:1)
- ① 하나님이 (창1,2장)
- ② 그런데 뱀은 (창3:1)  
(창3:4-5 (계12:9))  
(창4:16)

#### -기도제목-

1. 심야 - 말씀
2. 신년 하례회 (1/29)
3. 재직 세미나 (2/5)
4. 환우
5. 군선교사

### 녹취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추위를 뚫고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언약 잡고 원네스 되어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불되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 죄 가운데 빠져서요. 그래도 아벨이 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벨이 죽고. 그리고 가인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 죽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가문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아담이 정신 차려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

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돼 있어요.

다른 씨를 주셨죠. 언약의 바톤, 혈통을 계속 이어갈 아벨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셋을 줍니다. 이 셋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죠. 그래서 다른 씨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가 나오지요. 그때부터 비로소 언약이 회복되지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창4:26下).”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안 불러요. 찾지도 않아요. 찬양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셔서 셋과 에노스를 낳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에 단 한 분 뿐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사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대중 가위 보니까 옥경아.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옥경이 불러서 되겠습니까? 제이 뭐 그런 노래도 있고요. 허경영이 이름 뭐 내 이름 불러봐. 허경영 있잖아. 뭐 대통령 출마하고 막 그 사람. 그 반 무당입니다. “내 이름 불러. 그러면 문제 해결돼.” 이러잖아. 허경영이 이름 불러갖고 되겠어요. 이만희 이름 불러갖고 되겠냐고요. 매일 이 많이 다니는 사람 내가 만나려고 밥 먹자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으면 안 되잖아.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러야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찾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 우상, 사람. 막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면서 그것을 찾게 만들고 부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 자. 오늘은 이름 부르기입니다. 이름을 불러야지요. 어떤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고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있어야 할 걸 다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다 알아요. 이게 우리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만 부르면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막 울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왜 재가 우는 줄 알아요. 말은 못해도. ‘아, 배고프구나.’ ‘아,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구나.’ 안다니까요. 울기만 해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냥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부르지만 해도 돼요. 부르니까요. 많이.

자, 기도의 시작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까 이야기했어. “비로소 다른 씨를 주셨고 셋도 결혼해서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비로소.” 전에는 안 불렀다는 거죠. 잃어버렸

다는 겁니다. 잃어 버렸다니깐요.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불러요. 사람이. 창세기 3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이 뭐냐? 여호와와 말씀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처음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불러도 하나님을 많이 곱해하면서 찾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또 아담이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죠.” 하나님 탓을 딱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줘서 내가 이렇게 시험들게 하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갈데야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와서 뭐 합니까? 단을 쌓고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단을 쌓고 8절에 보면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아야죠.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불러요. 부른다니까요. 문선명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안상호를 찾고. 저희 집 옆에 보니까요. 남묘호란개고 빌딩을 하나 세웠어요. 금방 어떻게 하고 세웠는데요. SGI 크게 간판 붙여서. 센 놈이 와요. 센 놈이 왔어요. 기도해야 해요.

다른 이름을 자꾸 부른다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데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이죠. “주여” 부르세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부르잖아요. 부르기만 했는데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여기소서 이제 내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여”라고 부르라니까요. 자꾸 부르세요.

여기에서는 이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세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 아세요. 주님을 자꾸 부르라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요. 가끔이요.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새벽에 딱 앉아 기도하면 “사랑하는 종아.” 그래요. “왔니?”라고 그러세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부르죠. “아버지.” 불러요. 자꾸.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로, 기도로. 그러면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런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죠. 왜 그래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잘 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부르잖아요. 찾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응답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어요.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찾을수록 내 영적 상태는,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안 보여. 그런데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구나. 정상으로 올라갔구나. 안다니깐요. 말을 하면 말 색깔이 있거든요. 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대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백미라 권사님이 고개를 굉장히 많이 세계 흔드는데요. 전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내 사업을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저는 이따 좀 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찰에 윤덕만 목사님 우리가 기도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분이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테니스. 항상 어떻게 하면 테니스 하고 있어요. 탁구.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 속에서 저 그냥 얼굴도 막 짝 타서 까무잡잡하고 땅땅해서 얼마나 탱글탱글한지요.

그런데요. 갑자기 말이에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그래서 지금 아산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지난번에 들어가셨는데 9시간 수술을 받고 거기 지금 중환자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환자실 못 나오고 있단말이에요. 벌써 온 지 상당히 됐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우리 거기 보니까 막 기도 좀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 중환자실에서 빨리 나와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서 뭘 그렇게 꽃아서 줄로 그렇게 하고 막 CT 촬영도 몇 번씩 하고 그런대요. 촌각을 다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돈 벌고 싶지 돈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돈이 잘 벌리던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 부르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몸이 죽을 병에다 걸려서 낮게 하는 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왕이고 체면이고 죽게 생겼어요. 지금 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잖아요.

왕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능력 밖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희 집사람도 그냥 여기 아픈 게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제가 요즘 설거지 하랴 밥 하랴.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여자분들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먹고 나면 또 해야지요. 먹고 나면 또 해야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3끼 다 먹으니까 그래요. 어떤 집은 5끼를 먹는데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게 쉽게 안 낫네. 내 능력밖에 일이라서.

그래서 다른 방법 없다. 계속 기도 주님 부르는 겁니다. 주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능력밖의 일

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토기에 어느 목사님이 뭘 말을 하는데 뭐 평상시 하던 말인데 아프신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 이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쉽게. 그런데 저한테 꽃히더라고요. 그렇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주님의 말씀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이름을 못 부르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뱀은 딱 찾아와서요. 하나님 이름 못 부르게 가로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딱 와서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1번 일어나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딱 가서 뱀이 딱 나타나서요. 이 뱀은,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요놈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요놈이.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 찾는 꼴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못 본다니까요. 이렇게 사단이라는 놈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세요. 그래서 눈만 뜨면 하나님이 찾으시고요.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시고요. 자꾸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이번에 계속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시리즈로 듣는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화 중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물고 가면 돼요. 하나님을. 팬찮아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거예요. 팬찮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대화할 때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물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부르면서.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요. 그게 희한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막 어떤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난 것처럼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가 그러냐면 성도 중에도 연약한 성도가 막 고민이 많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니예요. 팬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큰일 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여튼 큰일 날 것처럼 말을 해버리면은 이제 진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셋과 에노스 그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저는 이 “비로소”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부딪혔어요. 다른 씨를 주셔서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그동안 안 불렀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부르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려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심야 기도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려야 되겠습니다.

▶ 오늘 이 말씀 심야 기도회 말씀을 기도회 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신년 우리 하례회. 우리 29일 이번 주일 날이죠. 29일 우리 중직자 신년 하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재직 세미나. 신년 재직 세미나. 우리 중직자 우리 램넌트를 참여해도 돼요. 2월 5일에 우리 예원교회 원네스홀에서 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윤덕만 목사님. 윤덕만 목사님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집중해서 좀 기도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선교사. 우리 박진혁.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으로 찾아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아다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نه교회 방송선교부 <http://ngrace.org>

부 장: 김군대 안수집사

후원계좌: 농협은행 302-7303-8128-11(예금주: 한병철)